

제8대 광주시의회 의장선거 '초접전'

민주당 재선 3인방 출마...이형석 vs 강기정 대리전 양상

정의당 '캐스팅보트'...8년만의 女부의장 탄생 여부 관심

제8대 광주시의회 원구성(원구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장 선거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유일한 야당의원인 캐스팅보트 여부와 8년 만의 여성 부의장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의장에는 당초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3인방인 김동찬(북구)·김용집(남구)·반재신(북구) 의원이 나란히 출마했다.

표면상 3파전이지만 의회 안팎에서는 김동찬 반재신 의원이 각각 9 표씩을 나눠 갖는 등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팽팽한 접전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의장 선거를 두고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 겸 북구를 지역위원장과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기정 전 북구갑 지역위원장 간의 대리전 양상에 재선 광역의원이 도전장을 낸 3자 대결로 보는 의견이 많다.

이로 인해 친(親) 이형석, 친 강기정 성향의 표들이 결집하면서 동수(同數)의 박빙전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진영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정의당이 캐스팅보트를 뒀 수 있다는 정치공학자들도 나오고 있다.

의장 선거와 함께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부의장 선거로 모두 5명이 입후보했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로 부재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장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된다.

장재성(서구1), 정순애(서구2·여), 김점기(남구2), 임미란(남구3·여), 장연주(비례·여) 의원이 출마표를 던졌고, 정의당 소속 장 의원을 뺀 나머지 4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여성이 3명, 남성이 2명이다. 1, 2부의장 등 2명을 뽑는 선거

여서 여성의원 당선 확률이 어느 때보다 높다.

광주시의회 역대 의장 13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고 부의장 31명 중에서는 안성례(1대 후반기, 1993년), 장영숙(2대 후반기, 1997년), 정현애(4대 전반기, 2002년·6대 전반기, 2010년) 의원 등 3명이 역임했다. 여성 부의장이 선출되면 8년 만이다.

23명의 재직 의원 중 유일한 야당 소속인 장 의원의 당선 여부도 관심이다. 장 의원은 "여당이 싸울 아하다시피 한 민의의 전당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으로서 조금이나마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9일 의장과 제1, 2 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 4명은 13일 운영위원장은 19일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신봉우 기자

동구, 청소년 자율방범 체험활동 추진

광주 동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자율방범 체험활동'에 참여할 학생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계립1동·산수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체험활동은 학교·학원가 주변과 골목길 등 취약지를 순찰하며 방범등, CCTV,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시설을 파악하고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및 등·하굣길 주변 위화요인을 직접 점검한다.

동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자원봉사홈페이지(www.1365.go.kr)에 신청하면 된다.

서대석 서구청장, 첫 정례조회 청내 방송으로

서대석 서구청장이 민선7기 구청장 취임 후 가진 직원들과의 첫 번째 정례조회를 청내 방송으로 대신했다.

지난 2일 열린 취임 선서식에서 민선7기 구청운영 방침을 밝히고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대면식을 가졌던 터라, 첫 번째 정례회의를 간소하게 치르기로 한 것.

하지만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강하고 단호했다고 전해진다. 훈시를 통해 서 청장은 "그 동안 우리 서구는 공직사회 내부, 공직자와 지역민, 지역민 상호간의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선 7기는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소통·양보하면서 대통합을 이루어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남구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신청하세요"

광주 남구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가정 형편상 끼니를 거를 것으로 우려되는 아이들을 위해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신청을 받는다.

5일 남구에 따르면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남구 관내 16개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가정의 중위소득이 52%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청소년녀 가정, 한부모 가족, 장애인 부모 가정의 자녀이다.

또 긴급복지 지원 대상인 아동과 보호자가 없는 아동,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맞벌이 가구의 아이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남구 관내에는 약 2,500명이 지원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인 북구청장,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

문인 북구청장이 첨단지구 민원현장을 방문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나섰다.

5일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이 첨단산단 활성화와 배후 주거단지 정주조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 종합지원센터와 현장 민원실 설치 예정지역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불편사항 해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문 청장은 취임 이후 첫 민생현장 행보로 기업현장 가까이에서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산업경제 활성화와 배후 주거지역 민원불편 해소를 전담할 경제 종합지원센터와 현장민원실 설치 예정지역을 방문했다.

이에 문 청장은 "신용동 인구가 3만 명이 넘고 아동과 청소년이 많이 거주해 행정 및 복지민원 수요가 많은 곳"이라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민원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용동에 설치될 경제 종합지원센터에 현장 민원실도 설치해 주민 편익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광산구, 청사 지하주차장 63면 민원인용으로

광주 광산구가 관용차와 직원 뒤편으로 배정했던 청사 지하주차장 63면을 민원인용으로 돌려 총 161면을 확보하는 등 구청 방문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에 나섰다.

그동안 서류 발급, 인허가 처리 등 광산구청에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주민들의 주차불편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김삼호 구청장은 취임 전 구정업무보고에서 '청사 방문 주민의 주차민원 해결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주차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구청 직원들의 편의를 얻어 민원인 주차장을 추가 확보했다.

임형택 기자

참여자치21 "‘與 독점’ 광주시의회, 소수야당 배려해야"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회 의석을 싹쓸이하다시피 한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 과정에서 사전 경선 등을 통해 나눠먹기 행태를 보이려는데 대해 시민단체가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5일 성명을 통해 "일당 독점으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비판과 견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지 걱정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의회 구성을 앞두고 의장, 부의장, 상임

위원직장을 끼리끼리 주거나 받거나 나눠갖기로 했다는 징검다리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 요구한다"며 "의정야가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뒤편이라고 해도, 부의장 한 자리 정

도는 소수 야당에게 양보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이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당독점은 정치와 부패를 낳고 배려·포용은 변화와 지지를 얻는다"며 "소수자 배려를 위한 톨큰 양보를 해야 민주당도 살고 의원들도 공부하고 공무원들은 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남규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첫 인사 '눈길'

시·군 단체장과 원활한 소통 능력·속도감 있는 결단 등



민선 7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첫 번째 인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시·군 단체장과 원활한 소통 능력, 필요한 자리에 대한 속도감 있는 결단 등이 앞으로 김 지사의 인사 스타일을 짐작케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취임 첫날 비서실장에 소영호 고흥부군수를

내정했다. 조직개편전에 조직안정을 위해 부단체장 인사도 조만간 할 뜻도 밝혔다.

부단체장 인사가 시·군과의 협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 4일 곧바로 최종인 여수시부시장을 자치행정국장 임명했고 그 자리에 고

재영 자치행정국장을 배치했다. 또 소영호 비서실장 기용으로 공석이 된 고흥부군수에는 김기홍 일자리정책실 부지유치 담당관을 임명했다.

김 지사의 거침 없는 인사가 가능했던 것은 전남도에서 국장, 행정부지사 등을 거치면서 사람과 조직 등을 꿰뚫고 있어서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 송귀근 고흥군수와 무소속 권오봉 여수시장으로부터 자신이 구상하는 인사를 별무리없이 발빠르게 끌어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두 단체장 모두 당적은 다르지만, 김 지사의 행정고시 후배라는 점 등에서 조속한 요청과 응답의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인사 당사자 4명 모두 지방·행정고시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빠르게 인사를 하다보니 공교롭게 모두 고시 출신이 됐다는 말이 있지만, 고시, 비교시 출신 균형이 어렵다는 평도 있다.

김정환 기자

전남도교육감직 인수위

대규모 물갈이 인사요청

전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5일 전남도교육청 본청 실과장과 지역교육장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본청 일부 실과장과 지역교육장들이 신임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핵심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미온적인 만큼 교육혁신과 적폐청산을 위해 인기를 보장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인수위는 "교육감의 교육철화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개혁적이고 청렴한 인사가 중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수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9월 교원 정기인사에서 본청 실과장과 22개 시·군 교육장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환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고흥 · 장성 · 장흥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소득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의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탁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